광주은행 등 은행권 하반기 공채 '속속'

광은, 내일부터 원서 접수…"채용인원 80% 지역 인재로"
신한·기업銀 등도 신입 채용…디지털 인력 확보 강화

광주은행 등 은행권이 하반기 공개채용에 돌입함에 따라 취업 준비생(취준생)들의 숨통이 다소나마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광주은행은 16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정규직 신입행원 공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채용 규모는 20여명으로, 모집 분야는 중견행원(4년제 대학 졸업자 및 2022년 2월 졸업예정자)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 지원서를 접수한 후 서류전형과 필기시험(NCS·일반상식·인성검사),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순께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이번 채용에서는 중견행원에 대해 지역인재, 일반인재, 디지털·IT, 통계·수학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이중 지역인재 및 디지털·IT 부문은 광주·전남지역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만 지원 가능하다.

일반인재 부문은 출신학교 지역을 구분하지 않으며 통계·수학 부문은 관련 학과 전공자 대상으로 지역인재와 일반인재를 구분해 채용한다.

광주은행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채용설명회 대신 16일부터 유튜브 '광주은행TV' 채널을 통해 신입행원 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코로나19로 기업들의 채용이 잇따라 연기되거나 취소되면서 고용시장 침체가 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은행은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청년 취업난 해소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열정과 패기, 도전정신을 지닌 인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은 전체 채용인원의 80% 이상을 광주·전남지역 출신으로 할당 선발해 지역의 취업난 해소와 지역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신한은행도 오는 23일까지 일반직 신입행원 공개채용과 사회적 가치 특별채용을 포함한 하반기 채용 서류접수를 진행 중이다.

신한은행은 디지털 인재를 '디지털 상상력을 발휘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로 정의하고 모든 직무에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한다.

이번 채용은 총 250명 규모로 일반직(기업·WM) 신입행원 공개채용, 사회적 가치 특별채용, 디지털·ICT 수시채용, 디지털·ICT 수시채용 삼성청년SW아카데미 특별전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IBK기업은행도 오는 24일까지 하반기 신입행원 100명을 공개 채용키로 했다. 지원서를 접수받아 서류심사, 필기시험, 실기 및 면접시험을 거쳐 12월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채용 분야는 금융일반, 디지털, 금융전문, 글로벌 분야로 나뉜다.

별도 전형을 통해 지역인재, 보훈, 고졸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신입행원 '고졸인재 별도 전형'을 신설한 데 이어 올 하반기에도 채용을 진행한다.

고졸인재는 입행 후 IBK에서 차별 없이 업무를 배울 수 있으며 역량개발 지원제도 등을 통해 학사학위 취득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은 하반기 중 청년인턴 250명도 추가로 채용한다.

대구은행도 16일까지 6급 신입행원을 공개채용한다. 일반금융, ICT(정보통신기술) 2개 분야에서 인재를 모집한다.

대구경북 소재 대학교 출신은 지역인재로, 이외는 일반인재로 구분한다.

서류전형 후 AI(인공지능) 역량평가를 거쳐 필기전형, 1차 면접, 채용 건강검진, 2차 면접을 실시한다. 최종 합격자는 11월 이후 결정된다. 신입행원은 2개월간 연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근무를 시작한다.

전북은행도 오는 17일까지 채용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 접수를 받고 있다. 모집 분야는 금융영업·금융공학으로, 금융공학 분야는 디지털·IT, 통계로 전북지역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예정자) 지역인재다. 이 외 지역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졸업(예정자)는 일반인재로 구분해 채용한다.

서류전형 이후 AI(인공지능) 역량검사를 진행하며 이후 온라인 필기시험과 1·2차 면접 전형을 거쳐 11월초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9월부터 늦어도 11월까지 은행들이 신입행원 공채를 포함한 하반기 채용을 본격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각 은행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시중은행 4곳의 행원 연평균 급여는 2017년 9천25만원에서 지난해 9천800만원으로 3년 새 775만원(8.6%) 늘어 1억원을 육박했다.

지난해 말 기준 4대 은행 중 직원 평균 급여액이 가장 많은 곳은 국민은행(1억400만원)이었고 하나은행(9천700만원), 신한은행(9천600만원), 우리은행(9천500만원)이 뒤를 이었다. /기수희 기자

지역 '착한 임대인' 6명 중기부장관 표창

광주·전남지역 '착한 임대인' 6명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을 받았다.

14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광주·전남중기청을 방문,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3명에 표창을 수여했다. 다른 3명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을 받았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전국적으로 착한 임대인 55명을 선정해 30명에는 중기부장관 표창을, 25명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을 각각 수여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운동으로, 지난해 2월 전주 한옥마을로부터 시작돼 전국 단위로 확산되고 있다.

광주지역 임대인 A씨는 본인 건물에 담보가 잡혀있음에도 불구 임차인과 공존하기 위해 4개 점포에 대해 약 1년 3개월동안 46% 수준의 임대료를 인하했다.

경남지역 임대인 B씨의 경우 1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 이외에는 별도 수입이 없음에도 임차인 고통 경감을 위해 임대료 20%를 인하했다.

이같은 자발적 동참에 발맞추기 위해 중기부는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지난 7월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을 통해 각 지역별로 신청·접수를 받아았으며 임대료 인하율·인하 점포수·인하 기간·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 및 훈격을 결정했다.

중기부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표창 수여 이외에도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 무상 전기안전점검 등 인센티브 적용 기간을 기존 올해 말에서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다.

또 임차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도 진행한다.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표준계약서 개정 및 보급, 개별상가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 임대료 산정, 소상공인의 임대차 관련 컨설팅 자부담 면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임대인 스스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고통을 나눠준 것에 감사드리고 정부 역시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명절음식 만들어요" 추석연휴를 나흘 앞둔 14일 오전 북구 임동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광주봉사관에서 '한가위 맞이 전통음식 만들기' 행사가 열렸다. 이날 자원봉사자 등 참석자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명절 전통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다. /김애리 기자

광주·전남 중기청 'AI 스타트업 캠프' 개소

옛 청사 리모델링…26개 기업·투자 지원 기관 등 입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은 14일 서구 농성동 소재 옛 청사를 리모델링해 '광주 AI 스타트업 캠프'(이하 AI캠프)를 조성,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에는 권칠승 중기부 장관, 이용섭 광주시장, 송갑석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AI 캠프 개소를 축하하고 입주기업 및 지원기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광주·전남중기청은 지난 2019년부터 옛 청사 활용방안을 수립, 지역주력산업인 AI산업과 연계 가능한 창업인프라 조성을 추진했다.

그 결과 AI 기업을 위한 26개의 입주공간(독립형11개·개방형 15)과 4개의 지원기관 사무공간, 코워킹 스페이스, 러닝 카페 등을 갖춘 AI 특화 창업공간인 'AI 스타트업 캠프'가 탄생했다.

AI 스타트업 캠프는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하며 티쓰리큐(주), ㈜더심플, ㈜에이아이플랫폼 등 26개의 우수한 AI 기업이 사전심사를 거쳐 입주해 있다.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호남권엔젤투자허브, 한국인공지능협회 등 4개의 투자·창업지원기관도 선정돼 캠프에 자리잡고 있다.

광주·전남중기청은 AI 캠프 개소식에 맞춰 입주기업 및 AI 전문기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 오는 17일까지 운영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25년간 지역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했던 의미있는 공간에서 인공지능 플랫폼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돼 매우 뜻 깊다"며 "인공지능 분야를 포함한 신산업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지역 내 AI 분야 창업투자 핵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

스마트한 에너지사용 캠페인

난방비 똑똑하게 절약하는 방법!
①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는 20℃입니다. 난방온도 1도 낮추면 에너지사용량을 7% 줄일 수 있습니다.
② 뽁뽁이와 문풍지로 외풍을 막으면 실내온도를 2~3도 가량 높일 수 있습니다.
③ 내복, 양말 등 실내에서 방한용품을 활용하면 체감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④ 전열기는 꼭 필요한 때만 사용하고, 사용 시에는 소비전력을 꼭 확인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